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수 워크숍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11일 진료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병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진료과의 인력 현황과 진료 실적을 비롯해 주요 현안 및 향후 발전계획을 살펴보고, 진료과 간 협력 강화와 의료인력 및 시설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P·I·S·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사례와 향후 활용 방안을 발표했으며, 홍보팀은 병원 홍보 콘텐츠 제작 현황과 신규 홈페이지 구축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등 병원 운영 전반의 주요 추진 사항을 공유했다.

백용해 병원장은 이날 우수 의료진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목표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과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신관 건립과 AI 활용 확대 등 병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한 행정직원 CS교육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 11일 본원 4층 명성세미나실에서 ‘2026학년도 행정관리직 신규직원 CS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행정직원의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조직 적응을 돕고, 비즈니스 매너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나미래교육원 김경진 대표가 강사로 나서 진행했으며, 병원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자세와 비즈니스 매너,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다뤘다.

교육에 참여한 한 신규직원은 “병원 행정 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비즈니스 매너를 익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환자와 내원객, 의료진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6년 AI 챌린지 발표평가회’ 성황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병원 업무 전반의 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2026년 AI 챌린지 발표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AI 챌린지에는 총 33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서류평가를 거쳐 선정된 최종 9개 팀이 발표평가에 참여해 각자의 아이디어와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발표평가에서는 AI를 활용해 실제 병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심사를 통해 대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등 총 4개 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백용해 병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AI 기술과 접목돼 병원 운영과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갤러리 숨, 정숙훈 작가 ‘다선 그리고 염원’ 민화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병원 1층 로비 갤러리 ‘숨’에서 정숙훈 작가 초대전 ‘다선 그리고 염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 민화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공작도, 반차도, 모란도, 책거리, 화점도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통해 전통 민화가 지닌 상징성과 아름다움을 작가만의 섬세한 표현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갤러리 ‘숨’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연우회, 김포 가연마을서 ‘자비의 의료봉사’ 펼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9월 12일 김포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가연마을을 찾아 ‘자비의 의료봉사’를 펼쳤다. 권범선 전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중증장애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 상담과 재활치료, 수액치료 등을 진행하고 의약품과 의료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우회 관계자는 “부처님의 자비와 중생구제의 정신을 의료 현장 밖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인술과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